

朝鮮時代 交通建築으로서의 院宇에 관한 研究

金 鍾 憲

(배재대학교 토목건축공학부 전임강사)

1. 序論¹⁾

驛舍의 기능이 國家政策을 州·郡·縣에 下達하고 公무여행자들에게 馬匹을 제공하는 등 交通에 대한 실제적인 일을 진행시킨 交通機關이었다면, 客舍와 院宇는 이들에게 宿食을 제공하는 交通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겠다.

그 중 客舍는 都邑에 위치하여 殿牌와 關牌를 모시고 王權을 상징하는 도읍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다. 따라서 客舍는 公務旅行者들에 대한 便益施設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그곳에서 宿食케 하여 중앙정부를 의식케 함으로써 각 도읍의 守令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상징성을 지닌 건축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院宇는 각 도로에 배치하여 위로는 國王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행 중 지치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交通편의시설이었다.

15세기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院의 수가 1309여개로 549개의 驛數의 2.5배가 된다는 사실은 당시 交通수단의 불편에 따른 院의 비중을 느끼게 한다고 하겠다. 또한 院宇는 交通便益施設로서 우리나라 私設宿泊施

設의 起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建築史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研究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흩어져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院宇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院宇의 입지와 기능 그리고 건축 형태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院宇라 함은 寺院·禪院 등의 寺刹이나 官衙·書院 등의 부속 건물들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건물을 지칭하는 院宇로서 보다는 交通建築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驛院條에 나타난 院宇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院의 起源과 發達

院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慶州府 驛院條의 기록으로 김생(711~791)이 살아 있던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院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大櫓院 在府南六里 有新羅金生 大櫓院三大字 (府의 남쪽으로 6리 떨어져 있는 大櫓院에 신

* 이 논문은 1998년도 배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라의 김생이 쓴 大檀院이라는 커다란 세글자의 글씨가 있다.)¹⁾

그러나 이 글 이후 院에 대한 통일신라시대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 院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고려시대의 기록에 있어서도 공양왕 3년에 趙浚의 상소에서 外役田²⁾, 즉 津·驛·院·館의 토지 등을 언급³⁾하면서 院에 대한 기록이 나올 뿐, 院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院이 국가의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거나, 관리는 국가에서 하되 운영은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크고 작은 寺刹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교통의 요지, 商旅와 물산의 집산지, 인적이 적은 산간·계곡·하천의 岸上에 위치한 것이 많아 이들 寺刹에는 일반 商旅의 宿食處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寺刹의 이러한 역할은 院의 일부가 사찰에서 유래했음을 추측해 주고 있다. 稷山의 弘濟院과 開城의 天壽院과 같은 원은 고려시대 寺刹의 직속 후신이며,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院名에 大寺院·禪院·大悲院·兜率院·彌勒院·觀音院·藥師院·般若院·金剛院·文殊院·無量院·塔院·佛藏院 등 불교식 이름이 많다는 것과 院의 설립자 가운데 승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⁴⁾ 등은 이러한 추측을 더욱 더 확실하게 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院은 국가가 운영하기보다는 寺院 즉 寺刹에 포함된 부속기관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사찰은 崇佛主義로 인하여 免稅免役의 특권을 향유하였기 때문에 승려들은 많은 田土와 奴婢를 소유하며 모든 생산물은 主擘의 관리하에 있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寺刹의 승려들은 각종 瓦塼의 燔造, 酒類의 釀造, 油蜂蜜의 생산, 각종 織物의 織造, 菜果의 생산 등 수공업 생산을 하며, 그 잉여 생산물의 상업적 행위를 증진시켜 사재축적에 힘써왔다. 따라서 국가는 院에 외역전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院은 국가정책에서 논외로 다루어졌다고 하겠다.

「高麗史」文宗 18년(1064년)의 아래 기록은 普通院이 寺刹이었는지 혹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院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려시대의 普通院에서 교통건축으로서 院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기간에 普通院에 죽과 채찬을 준비하여 놓고 行客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려말 寺刹이 주민을 상대로 고려대 금업을 촉진시키는 등 점차 문란하게 되면서 고려는 조선에 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新興士大夫들은 崇儒抑佛 정책으로 佛教寺刹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조선시대의 院은 고려시대의 사찰에 대한 정비과정에 나타난 寺刹의 유희시설을 활용하고, 승려들을 이용하는 데서 院의 전국적인 발달을 보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朝鮮王朝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院」을 종전의 站驛制와 같이 공적인 성격의 기관으로 개편 정비해 나갔다. 이는 태조 6년에 편찬된 經國大典에 「院館修補考察之法」, 「院主差任」, 「院宇維持法」 등 院에 대한 제 규정⁵⁾이 기재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조선왕조는 中央集權化 政策의 일환으로 驛과 함께 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각 郡縣에 院을 확대 정비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국가가 주동이 되어 高麗時代 개별적으로 설립 運營되거나 私營되어 오던 院을 지방관의 관할하에 두었다. 또 수령의 책임하

1) 「新增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府 驛院條

2) 지방의 鄉吏들에게 준 토지

3) 「高麗史」卷第 78 志卷第 32 食貨 1 田制條

4) 崔在京, 조선시대 「院」에 대하여, (嶺南學, 1975), p.39

5) 崔在京, 앞의 논문, p.41

에 院宇를 신축하고 院主를 선정한다든지, 院에 位出을 定給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院制를 정비하여 大小使客 등 公務旅行者는 물론 일반 상인이나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⁶⁾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이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院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는데 점차 민간의 사설 교통건축이었던 酒店과 酒幕이 발달함에 따라 이들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표 1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院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는 조선초 王朝實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慶尙道地理誌나 世宗實錄地理誌에는 「驛」만 기재되어 있고 「院」에 대한 언급은 없다. 院이 地理誌에 기재되기 시작한 것은 「慶尙道續纂地理誌」와 「東國輿地勝覽」이다. 院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이 거의 유일한 것이다. 이밖에 全國邑誌인 「輿地圖書」에서 소멸해 가는 院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院의 분포를 驛과 비교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 및 大東輿地圖, 地誌 등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각 驛과 院의 비교표

冊名 역원 지방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輿地圖	
	驛	院	驛	院	驛	院(地誌)
한성부	2	4	2	1	1	0
개성부	2	6	2	0	0	0
경기도	50	114	47	2	6	0(35)
충청도	71	209	69	2	9	0(0)
경상도	158	468	153	36	14	3(0)
전라도	60	251	58	42	13	4(0)
황해도	31	76	21	16	12	1(10)
강원도	82	64	81	20	6	2(55)
평안도	39	80	16	40	21	1(10)
함경도	54	37	48	3	6	1(1)
계	549	1,309	494	162	88	12(101)

3. 院宇의 機能과 役割

院宇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沃川郡 赤登院의 徐居正이 쓴 樓記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옥천은 사무가 번잡한 고을로 서울로부터 충청도로 가고 충청도로부터 경상도로 가는 길목이어서, 사신과 여행자들의 오가는 말굽과 수레가 날마다 서로 잇따라 있다. 군의 동남쪽 30리쯤에 속음이 있으니 이산이라 하고, 강이 있어 넓이 수십 리를 가로질렀으니 적등이라 한다. 그 위에 원이 있고 樓閣이 있으니 참으로 큰 길거리의 중요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큰 더위와 몹시 추울 때나, 모진 바람과 비오는 피로운 날에 길가는 이들이 여기에 와서 머물게 되고, 혹은 물을 건너기 어려울 때나 길이 늦었을 때, 말과 소가 모자라거나 도둑의 염려가 있을 적에는 여기서 쉬기도 하고, 樓에 올라 구경도 하고, 자고 묵기도 한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적에는 서늘하게 해주니, 사람들에게 덕을 증이 어찌 적다 하겠는가? ...⁷⁾

이 기록을 통해 院宇가 큰길에 세워져 있어 춥거나 더울 때 등 날씨가 고르지 못할 때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어둡거나 도둑 등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끼거나 말과 소를 보충해야 할 때, 院宇에서 묵고 여행에 따른 피로를 樓에 올라가 구경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 聞慶縣 犬灘院의 記文中에서 權近은

서울에서 경상도로 가려면 반드시 큰 재가 있는데, 그 재를 넘어서 약 백리 길은 모두 큰 산 사이를 가야 한다. 여러 골짜기의 물이 모여 내를 이루어 관갑에 이르러 비로소 커지는데 이 관갑이 가장 험한 곳이어서 낭떠러지를 따라 사잇길로 길을 열어서 사람과 말들이 겨우 통행한다. 위에는 험한 절벽이 둘러 있고, 아래에는 깊은 시내가 있어, 길이 좁고 위험하여 지나는 사

6) 崔在京, 앞의 논문, p.36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5 沃川郡 樓亭條

람들이 모두 떨고 무서워한다. 몇 리를 나아간 뒤에야 평탄한 길이 되어 그 내를 건너는데, 그것이 犬灘이다. 犬灘은 호계현의 북쪽에 있는데 나라에서 제일가는 요충이요, 경상도에서 가장 험한 곳이다. 여울 위에는 전에 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퇴락한지 오래되어 길손이 설 곳이 없다. 華嚴大師 眞公이 일찍이 여기를 지나다가 개탄하여,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곧 그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떠돌 배어 거처할 집을 짓고 또 길손들을 접대해 가면서, 여러 사람을 잘 달래어 재물과 사람의 힘을 모아서 재목을 찍고 기와를 굽는 등 공사를 일으켜서, 몇 간 집을 세워 걸어다니는 길손이 머물러 자는 곳으로 하였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리를 달리하고, 사람과 가축의 처소를 따로 하였다. 또 그 남쪽에 누각 몇 간을 지어서 길가는 이는 거기서 쉬어 가고, 구경하는 이는 올라가 보며, 지친 사람은 거기에서 쉬고, 더운 사람은 시원하게 하였다. 몇 해 안되어 준공하였다.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모진 돌을 까서 치우고, 비탈을 깎아 평평하게 하여 관갑의 길을 보수하였으므로 좁은 길, 위험한 사다리 길이 모두 평탄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보아 길이 험한 곳의 院宇를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眞公 스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院宇를 신축했음을 알 수 있다. 이 院宇는 身分의 차이에 따라 또 사람과 가축의 居處를 분리하였고 樓閣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 權斤은 같은 글에서

삼가 주례를 살피건대, 나라의 들에는 10리마다 廬(초막)가 있고 30리에 宿(여관)이 있었으며, 또 후세에는 10리에 하나의 長亭이 있고, 5리에 하나의 短亭을 둔 것은 모두 나그네를 위한 것이었다. 나라에서 파발을 두어 사명을 전하고, 원을 두어 商人과 旅行者에게 혜택을 주되, 公과 私의 구별, 上과 下의 구별이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파발에는 각각 관리가 있어 그 직책에 힘썼으나, 원에는 다만 밥을 주고 사람을 모집하여 그것을 주관케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평원이나 기름진 땅 안에 있어서도 주관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가끔 있었으니, 하물며 깊은 산골의 험하고 매마른 곳임에랴. 들에 있어서는 살고 있

는 사람들도 많아서 원집이 없어도 잘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골짜기 외진 곳에서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고, 사람과 말은 지치고, 범이나 표범의 두려움, 도둑의 염려 등 길손의 걱정은 이에서 더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길이 험한 곳에서 院이 더욱 더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기록을 통해 院宇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⁸⁾

- ㉗ 報恩의 王來院, 坡州의 兜率院과 焚修院, 長湍의 普賢院, 藥師院과 같은 원은 국왕이 지방을 巡視할 때나 避難 길에 이용하였다.⁹⁾
- ㉘ 忠淸道 鎭川의 廣惠院과 平安道 中和의 駒峴院과 같은 원에서는 新舊 監司가 원에서 교대하였다.¹⁰⁾
- ㉙ 漢城府의 弘濟院은 중국 使臣이 옷갈아입는 곳 혹은 宿泊處로 이용하였고, 普濟院은 耆老들이 연회의 장소로 이용되었다.¹¹⁾
- ㉚ 各道의 觀察使가 道內의 각 邑을 巡歷할 때 원에서 점심을 하거나 馬匹을 교체하였다.¹²⁾

이를 통해 院宇의 기능이 驛舍나 客館, 客舍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순시나 피난, 官吏들의 신구 교대, 사신들의 숙박처, 관리들의 숙식 및 마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일반 백성이나 일반 상인들의 숙식소로도 이용되었다고 하겠다. 院宇의 규모는 3·4間 정도의 규모로 驛舍에 비하여 작고, 경제력을 나타내는

8) 崔在京, 앞의 논문, pp.69~70

9)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王來院, 兜率院은 恭愍王이 駐驛했던 院이고 普賢院은 毅宗이, 藥師院은 忠肅王이 行次했던 곳이다.

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6 鎭川縣 驛院條, 卷 52 中和郡 驛院條

11) 「新增東國輿地勝覽」卷 3 漢城府 驛院條

12) 「眉巖日記」(柳希春)三(六冊)辛未 4月 11日條 및 同 6月 8日 條

院田 역시 최고 35結이 이르는 등 驛田에 비하여 그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院宇가 일반백성들에게 이용이 된 것은 원우가 불교사찰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院宇는 半官半民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후기에 院宇는 驛舍에 비해 관리가 되지 못하였고 酒幕이나 酒店에 의해 대체되었던 것이다.

4. 院宇의 立地와 그 性格

院宇는 주요 교통로의 산재(嶺)나 고개마루(峴), 산밑, 산골짜기 입구 등에 위치하였다. 각 邑內에는 官衙, 客舍 및 각종 樓亭 등이 있기 때문에 院宇는 주로 城 밖에 위치하였다. 이는 客舍와 院宇의 위치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국가적 의도도 있겠지만, 院宇의 이용자 입장에서 관아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사진 1. 조령원터(추정) (필자 촬영)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해 院宇의 위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 驛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
- ㉡ 站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
- ㉢ 내륙하천의 渡·津의 兩岸 및 교량 부근에 위치한 것
- ㉣ 산재, 고개, 산밑, 산골짜기 입구 등에 위치한 것

㉤ 강화도, 제주도 등 島嶼출입에 용이한 위치에 있는 것

㉥ 청주의 椒井院, 延豐의 溫井院, 成川의 溫井院, 東萊의 溫井院 등과 같이 溫泉에 위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³⁾

이를 통해 院宇의 위치에 따라서도 院宇의 기능에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中外 使客이 많이 集散하는 院宇에는 公的인 여행자가 많았겠고 海陸産物의 集散地에 위치한 院宇에는 商人이 많았을 것이며 僻村에 위치한 院宇에는 서민들의 이용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2. 弘濟院址 부근 民家
(京城電氣株式會社, 碧蹄館)

5. 院宇의 建築的 形態

院宇의 건축적 형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院宇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성부의 弘濟院은 중국사신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 혹은 留宿하는 곳으로 시설이 화려하고 규모가 웅장하였다. 충청도 鎭川의 光惠院과 평안도 中和의 駒峴院은 신구 관찰사가 교대하는 장소로서 다른 원에 비하여 규모가 컸다고 하겠다. 고려시

13) 崔在京, 앞의논문,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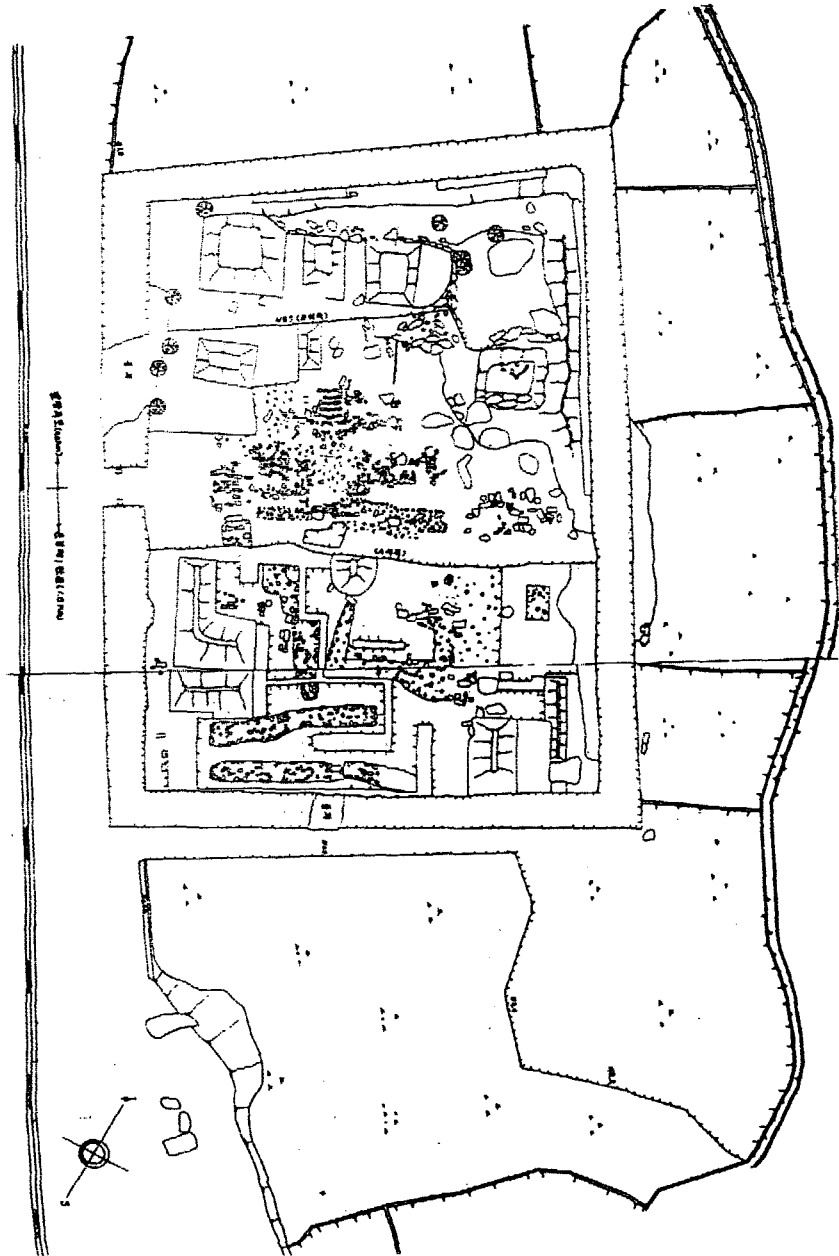


그림 1. 傳鳥嶺院址의 發掘圖面
(출처: 鳥嶺館內傳鳥嶺院舊基發掘調查概報)

대 稷山의 弘慶院은 80여칸이나 되었으나 寧越의 龍井院과 廷平院은 6칸이었고 洪川의 泉甘院과 結城의 廣川院은 3칸으로 원의 성격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院宇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하여는 李奎報의 懸鐘院 重勅記에서 대략 살펴볼 수 있다.

“豐樑傑棟 以壯其內 崇門大闢 以固其外 繚之以脩築高墉 備捍衛阿阿 然後行旅入宿者 如入金城 夜不相警焉 前立一亭 置床茵 以備休息之所 設甌勺 以資挹酌之具”¹⁴⁾

즉 院宇의 내부는 장식이 화려하고 도리와 곧게 뻗은 보를 통해 장려하게 하고, 외부는 문을 높게 하고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앞에는 정자를 세워 평상과 자리를 준비하여 여행자의 휴식처로 삼고 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器皿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公州의 普通院을 세우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강 상류에서 재목을 흘려내려 보내고, 동쪽 언덕에서 벽돌과 기와를 굽게 한다. <목사>가 아침, 저녁으로 친히 현장에 나와 앞에서 직접 지시하고 뒤에 물러서서는 길이와 넓이를 혹은 줄이고 혹은 넓히는 등 설계도를 작성하고, 지세에 따라 동쪽편에 賓樓를 세우고 남향으로 향하게 하여 높이 세웠다. 主宇와 西序¹⁵⁾, 南廡는 공히 14칸으로 옷 갈아입는 방이 있는가 하면, 음식차릴 공간이 있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방, 여름에는 서늘한 大廳이 있었다. 터를 닦고 지으며, 흙바르고 단청을 칠하니, 넓지도 좁지도 않으며, 그 꾸밈은 추하지도 않고, 평평한 뜰과 다듬은

층계와 행랑, 보도 등이 있어, 위로는 가히 禮를 행할 수 있고, 아래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되었다.”¹⁶⁾

이 기록으로 牧司가 설계도까지 작성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여 목재와 벽돌, 기와 등으로 普通院을 세웠는데 계결과 기후 및 각 기능에 따라 공간이 구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청까지 칠함과 동시에 층계, 행랑 및 보도 등을 설치하여 상당히 격식을 지녔다고 하겠다.

그리고 충청도 懷德縣 彌勒院의 경우 동서 양쪽에 집을 지어 男女가 머무른 곳을 따로 하였다는 기록과 院宇의 높고 낮음은 땅 형세에 따랐고, 南樓가 가장 蕭洒했다는 기록을 통해 院宇에서도 역시 男女의 區別이 이루어졌으며, 지형의 형상에 따라 院宇가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晋州 開慶院의 경우는 「重樓復屋」, 「上下堂廡」¹⁷⁾의 다소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루복옥」, 「상하당무」의 형태는 樓가 2층으로 구성되고 각 층마다 지붕이 얹어져 있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즉 1층과 2층이 뚫려 있는 통층이 아닌 2층에도 바닥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上下堂廡」의 표현으로 보아 위아래의 堂주위에 月廊이 둘러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건물은 건물 위에 다시 상층의 건물을 올려놓기 위해 공포를 이용하여 坐臺를 구성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平坐’를 두어 건물을 구성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의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高麗時代 觀經變相圖의 殿閣圖(그림 2)에 이러한 유형의 건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존했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14) 「李相國集」卷 24

15) 원래는 夏代의 小學校로서 普通院에서는 아마도 아들에게 교육을 시킨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원래 普通院이 원래 迎秋亭으로 立春에 牧使나 判官이 여러 衙前과 將卒을 거느리고 제사를 지내어 社稷을 받들고 농사를 익히며, 1년의 수입을 회계하고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경축을 하는 등 1년의 행사를 이곳에서 행하던 곳으로 백성들과 밀접하게 접했던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16)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7 公州牧 驛院條
이 글은 李仁老의 「東文選」중 公州 東亭記에서 東亭에 대한 묘사와 같은 내용으로 후에 普通院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된다.

17) 「新增東國輿地勝覽」卷 30 晋州牧 驛院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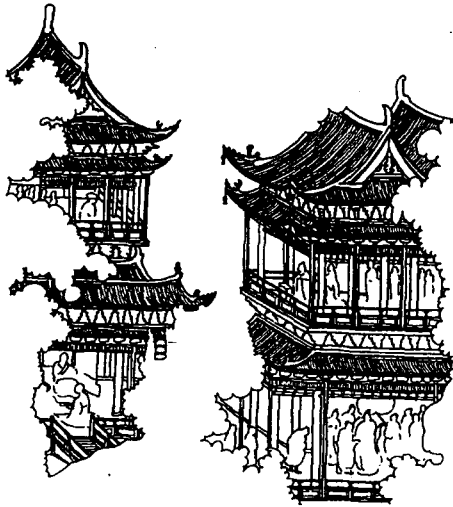


그림 2. 高麗時代 觀經序品變相圖(日本 西福寺 所藏)
 (출처:김도경,주남철, 高麗時代 觀經變相圖의 殿閣圖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4, pp.94~99)

이러한 유형의 형태는 院宇의 이용이 위로는 國王에서부터 아래로는 百姓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公·私의 구별, 신분차에 의한 공간구별 및 男女의 공간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사진 3. 문경새재에 있던 신혜원의 허물기 전의 모습
 (출처 :최영준, 嶺南大路, 1990)

그러나 사진 3의 신혜원 모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院宇는 半官半民의 성격으로 건축적 형태가 관아적 성격의 驛舍와 같이 격식을 차리기 보다는 편의성에 우선권을 두고 세워졌기 때문에 草幕에 토담집의 구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6. 結論

조선시대의 중요한 육로의 교통건축으로는 驛舍와 客舍 그리고 院宇를 들수 있다 그중 驛舍는 國家政策을 州·郡·縣에 下達하고 공무 여행자들에게 馬匹을 제공하는 등 교통에 대한 실제적인 일을 진행시킨 交通機關이었다. 또 客舍는 都邑에 위치하여 殿牌와 闕牌를 모시고 王權을 상징하는 도읍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다. 따라서 驛舍와 客舍는 관아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반면에 院宇는 각 도로변에 배치하여 위로는 國王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행 중 지치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교통편익시설이었다. 院宇는 그 이름에 불교식 이름이 많은 것으로 보아 佛敎寺刹에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院宇는 半官半民의 성격을 갖고 있다.

院宇는 숙박을 위한 溫突房을 위시하여 廚房 및 馬匹을 위한 마굿간을 갖추고 있었다. 또 이용자층의 다양함으로 인해 公的인 旅行者와 私的인 旅行者가 거처하는 空間이 구별되었고 신분차에 의해, 또 男女의 구별에 의해 空間區分이 이루어졌다. 겨울에는 溫突房에서, 여름에는 마루를 가진 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또 지형의 높고 낮음을 이용하였다.부속 건물로는 樓와 亭이 있고 이들 건물에는 단청을 칠했었다.

건물의 규모는 3·4間 정도의 규모로 驛舍에 비하여 작고, 경제력을 나타내는 院田 역시 최고 35結이 이르는 등 驛田에 비하여 그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1. 高麗圖經, 徐兢,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2
2. 高麗史, 鄭麟趾, 延大東方研究所 影印本, 1972
3. 與地圖書, 上下,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78
4.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1971
5. 金富軾, 三國史記, 李丙燾 譯註, 乙酉文化社, 1994
6. 一然, 三國遺事, 李民樹 譯, 乙酉文化社, 1987
7. 金度慶, 朱南哲, 高麗時代 觀經變相圖의 殿閣圖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11권 4호, 1995.4
8. 金鍾永,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檀國大碩士論文, 1988
9. 金鍾憲, 韓國交通建築의 變遷과 發達에 관한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0. 金昌洙, 交通과運輸, 한국사10, 國史編纂委員會, 1981
11. 內藤雋輔, 高麗驛傳考, 歴史と地理, 34-4.5, 1934
12. 白壽彝, 中國交通史, 商務印書館, 中華民國 76년
13. 趙炳魯, 朝鮮時代驛制研究, 東國大博士, 1991
14. 朱南哲,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8권 116호, 1984
15. 朱南哲, 客舍建築의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권 3호, 1986
16. 朱南哲·金鍾憲, 朝鮮時代 驛舍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2권 8호, 1996.8
17. 진단학회, 한국사 - 근세전기편, 1971
18. 崔英俊,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的 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19. 崔在京, 朝鮮時代 院에 대하여, 嶺南史學, 1975
20. 韓國道路公社, 韓國道路史, 1981

A Study on the WonWoo as the Transportation Architecture in the Chosun Dynasty.

Kim, Jong-Heon

(Full-Time Instructor, Paichai University)

ABSTRACT

After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Korean transportation architecture had been chang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supporting the kings ruling system and gradually the characteristics as transportation architecture had cleared and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it. With this it was found that Korean transportation architecture like YukSa(驛舍), ChamYuk(站驛), GaekSa(客舍), JinSa(津舍), DoSa(渡舍), WonWoo(院宇), JuMak(酒幕) and etc. had been developed variously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had developed with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ransportation architecture.

Some of them ,for example YukSa, ChamYuk, GaekSa, JinSa, DoSa,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office, so they had fundamental dignity of Korean wooden architecture on tile roof. But the WonWoo which was used by all of the people from the king to the people, had the characteristics of half-government and half-private. And the space of Wonwoo was divided by the social position, the sex and the difference of temperature between summer and winter. And it was mostly located at the place away from the haunts of men, the form of it was the mud wall hut of the straw-thatched cottage like Sinhyewon of Mungyungsaekjae and it was different from the station buil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office.